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한일 비교

Korea-Japan comparative analysis on daily life of the elderly

이 미 란

고신대학교

Lee mi-ran

Kosin University

요약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특히 한국과 일본은 현저하게 빠른 증가 속도로, 2050년 일본이 세계 1위, 한국이 세계 2위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일상생활활동의 건강성에 관한 실태와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 문화 및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인 문제를 우리보다 약 20년 정도 앞선 경험으로 고령화 대책이 구체적인 일본 노인복지를 통하여 한국 노인 문제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각각 양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한일 65세 이상 노인 603명과 2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훈련된 연구 조사원들을 통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한국의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과 센터 등에서, 일본의 시니어클럽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의 자원봉사 그룹, 고령자 생협 소속 노인들에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인간존엄의 근원적 테마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 서론

전 지구적인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자는 사회전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의 건강성 유지,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 유교주의적인 뿌리와 사회문화 전반적인 흐름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에서 고령인구의 활성화방안은 사회전체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의 일상 생활 건강에 관한 의식 조사의 결과를 분석 정리하는 것을 통해, 한일 초고령 사회에 요구되는 고령기 대책의 일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연구가 필요한 배경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한일은 함께 고령화가 현저하게 빨라 2008년 개정 유엔 추계는 2050년에 일본이 세계1위(39.6%), 한국이 2위의 장수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국가 경제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양국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유사한 다양한 노인 대책을 만들어 왔다. 셋째, 초고령 사회의 도래는 '고령자 복지, 개호복지, 고령기 대책'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근본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넷째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며 고령 사회를 향한 고령기 대책의 과제를 제시해 나감으로써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

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동 연구자가 한국어로 작성하고 실제로 한국노인의식 조사를 실시한 설문지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의 실시 기간은 2011년 1월~3월이며, 대상은 B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설문 조사를 읽고 듣고 대답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대상이었다. 방법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훈련을 받은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 조사이다. 배포수 700개, 유효 회답 수는 603개이다.

한편, 일본의 실시 기간은 2012년 2월~3월이며, 대상은 A시 노인 클럽 연합회, B 사회복지 법인의 자원 봉사 그룹, C 노인생협에 소속되고 스스로 설문에 응답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대상이다. 방법은 A시 노인 클럽 연합회에서는 회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33단체에 10부씩의 설문지와 회신용 봉투를 배포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에게 설명하고 협력자 각자에게 넣어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른 2곳은 법인 직원에게 협력 의뢰를 요청, 그 위에 협력자에 취지 설명, 시설에 수거함을 설치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배포 수는 A시 노인 클럽 연합회 330개, 다른 2곳 400장씩 총 410장이며, 회수 수 275 중 유효 회답 수는 267 (표) (65.1%)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1) 일상 생활 활동 정도, 2) 현재의 정신 상태, 3)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 4) 가족과의 관계, 5) 지금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해 6) 일반 사항 (응답자의 특성)이다.

Ⅲ. 결론 및 논의

다음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고령기 대책의 과제를 다음 3가지에서 검토한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있어 보인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노인은 일본의 노인 보다 정신 상태가 불안정 (표 참고)이거나 여러 데이터에서 볼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노인 클럽이나 지역 봉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생각 때문에 이번 조사에 한해서 말하자면, 차이가 컸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일본과 미국의 4~5배라고도 한다. 물론 일본도 5위 (2011)는 상위 국가이며, 1955년에는 세계 제 1위를 경험 한적이 있다. 그 당시의 일본 사회는 가족 제도의 해체, 핵가족화의 진전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 훈련이 부족한 시기이며, 사회 보장도 미발달의 시대였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에 호응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인도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노인 복지 연구자인 武永은 “노인복지”의 저서에서 쿠로이토(Kruijt, C, S)의 지적을 인용해 “사회 생활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미확립 된 곳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노인의 의존성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에서 갑자기 떨어진 때, 외로움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현대의 노인에게도 시사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노화됨에 따라 타인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연장자를 소중히 하는 유교 정신이 타인의 보조(간호, 요양), 타인에 대한 케어에 영향을 고려해보는 의미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와 사회 문화적 배경도 감안하면서, 서양적인 개인주의와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 적극적인 길을 다양한 분석 관점에서 고령기 대책과 고령기 연구에 요구되고 있다.

둘째, 고령기의 경제적 보장과 사회 참여에 관하여보면 일본은 국민 모두 보험 모두 연금 정비 속에서 노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연금으로 고령기를 보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88년에 국민 연금법이 시행되었지만, 연금 지급 개시는 2008년 이후이며,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업체에서 실질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 가족의 老親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유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물질적, 경제적으로는 老親부양에 의해 고령자의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의존적 경향이 고령기를 사는 노인의 삶의 의욕이 저하 될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의 지혜와 경험은 활용되는 것”, “인생에 의미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 할 사항

이 될 것이다. 고령기를 풍부하게 살기 위한 사회 참여와 생활에 대한 경제적 보장과 주체적 자유가 생활 의식에 연동하면서 고려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가족의 변화와 가족과의 새로운 연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과 한국도 다세대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싱글 또는 부부세대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보여 온 한일 가족 규모(가구 구성)의 공통점은 표와 같이 단일가구, 부부가구, 미혼 부모와 자식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거와 별거에 관계 없이 ‘딸과 아들은 진심을 말할 수 있는 대상, 가족’이라는 인식은 고령자 중에 강한 것 같다. 사실 이 둘만으로도 사회적인 중요한 과제이지만, 특히 가구 구성의 변화는 일단 여러 가족인 노인 가구는 단신 세대 예비군이며, 미혼 부모와 자식 세대는 부모 없는 후단신 세대이며, 취업이나 생활면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낳는 예비군이다. 즉, 지금의 노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고령기를 사는 사람들의 동향을 감안한 가족 정책이 사실상 더 중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조사와 일본의 조사와의 비교 연구이다. 그러나, 조사 방법, 프로세스, 모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신뢰성 등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과제 및 사회 현상의 공통성, 상이성, 융합성 등의 발견에서는 제안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후 자료의 세부적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더욱 연구를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 [1] 소국 히데오, “일본, 한국, 대만의 사회적 개호시스템과 비공식 지원에 관한 비교 연구”, 칸사이복지 대학, 지역 사회복지연구소., 2012.
- [2] 武永., “일본의 노인의 자살과 그 특성”, 츠카모토 의 노인복지, pp. 86-87.